

「어머니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부동반 자녀양육교육으로 조절된 아버지 산후 우울의 매개효과」 토론문

노보람(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이 아버지의 영아기 자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아버지 산후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 참여가 아버지 산후 우울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매개변인은 아버지의 산후 우울, 조절변인은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으로, 이러한 변인 설정은 양육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오늘날의 관점에 부합하며 풍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으로 조절된 아버지 산후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아버지 산후 우울증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자녀 출생 첫 해의 경우 어머니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이 높고 영아는 수면시간이 짧으며 잦은 수유와 배변처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기 아버지 역시 자녀의 출생으로 급격한 역할 변화를 경험하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은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 출생 후 겪는 부정적 정서에 주목한 질적 연구는 이 시기 아버지가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느끼는 역할부담으로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아버지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아버지 산후 우울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아버지 산후 우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이미 완성도가 높고 풍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토론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가 연구를 검토하면서 떠올린 몇 가지 보완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인 명에 대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절변인으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도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패널연구에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배우자 동반 여부’ 조사결과를 활용하였고, ‘신생아 돌봄’, ‘신생아와의 상호 작용 촉진 교육’, 그리고 ‘영아 돌연사 위험 예방’ 교육 참여 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인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참여’를 덧붙이는 것과, 자녀 양육 교육 대신 ‘부모교육’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 변인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으로 연구된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출산 전 교육경험 여부’의 경우 교육을 받은 주체를 ‘어머니’로 명시하고, 교육 받은 것의 의미전달을 위해 ‘교육참여 여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제 변인에 관한 의견입니다. 변인 간의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이용, 맞벌이 가구 여부, 저소득 가구 여부 등 통제변인을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연구의 강점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통제변인의 설정 근거를 연구도구 부분에서 한 문단으로 짧게 언급하는 것은 설정 근거를 제시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변인이 통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서론으로 옹기고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계한 모형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논의 및 결론에서 이 연구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추가 되길 제안합니다. 현재는 경로에 관한 논의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 산전후 우울, 아버지 산후 우울, 그리고 아버지 양육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역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 읽을 때에도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감이 우려할만한 수준인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기술 통계 결과를 보면 우울감의 평균치는 산전후 우울 측정에 사용한 K-EPDS척도 기준으로 비우울군으로 분류될 수치였지만, 표준편차 값이 크게 나타나 집단 내 이질성 커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논의를 제공한다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더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